

韓·美 防産 공동운영위원회 개최



韓·美 방산업체간 기술협력 강화와 한국정부의 개정된 절충교역(off-set) 정책을 주요 의제로 한 한·미 방산 공동운영위원회가 5월 14일 미국 알라바마주 헨츠빌시 매리어트호텔에서 鄭秀烈 한국측 공동의장과 Howard M. Fish 미국측 공동의장 등 양국의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 Fish 미국측 공동의장은 최근 미국 정부인사들과 대담결과 미국정부도 기술이전문제에 관한 한·미 업체의 노력에 동참할 용의를 표명하였다고 전하면서, 한·미 양측은 인력과 자원을 갖추어 이 문제를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 모두 「생산활용(Build to print)」 형태가 중국에는 기반기술에 대한 설계기술뿐만 아니라 교육까지 제

▼美 항공로켓센터를 방문한 우리측 위원단



공하게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는데 견해를 같이했다.

鄭秀烈 防振會 부회장을 비롯한 우리측 위원단 일행은 회의기간중 헨츠빌에서 열린 기술산업전시회(TABES)를 참관하였으며, IAT社와 록히드 유도·항공社 등을 비롯한 미국내 주요 방산업체 5개사를 시찰하였다. (泰)

韓·佛 防産 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 열려...

防産 기술협력 다변화를 위한 노력이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프랑스간 방산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가 6월 15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개최된다.

鄭秀烈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과 Guy Rupied 프랑스 GIFAS 수출위원회 사무총장을 비롯한 양국 방산업계 대표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게 될 이번 제1차 회의에서는 양국의 국방획득정책과 절차 소개와 협력사업 및 기술이전 관련사항, 제3국 공동수

출을 위한 양국의 견해가 타진되며, 위원회의 규약과 향후 활동방향 및 분과위원회나 특별위원회 구성의 필요성 검토와 함께 양국 방산협력에 대한 관심사항이 논의된다.

이번 회의를 위해 내한한 프랑스 위원단은 6월 15일 방위산업진흥회(KDIA)가 주최하는 리셉션(서울 가든호텔)에 참석하며, 16일과 17일에는 만도기계, 오리엔탈, 삼성전자, 서울엔지니어링, 협진정밀 등 5개 국내 방산업체를 방문한다.



제 3 회 아시아 防産 전시회 (DSA 92) 에 대우조선 · 대우중공업 공동 출전

대우 조선(대표: 金慶洙)과 대우중공업이 4월 27일부터 4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제3회 아시아 방산전시회(DSA '92)에 공동 참가하여, 한국의 뛰어난 防産기술력의 국제적 홍보와 함께 많은 참관인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全世界 28개국 4백83개 업체가 참여한 이번 전시회에서, 대우조선은 말레이시아 해군의 최근 요구사항을 반영한 경비함 모형을 제작, 출품하여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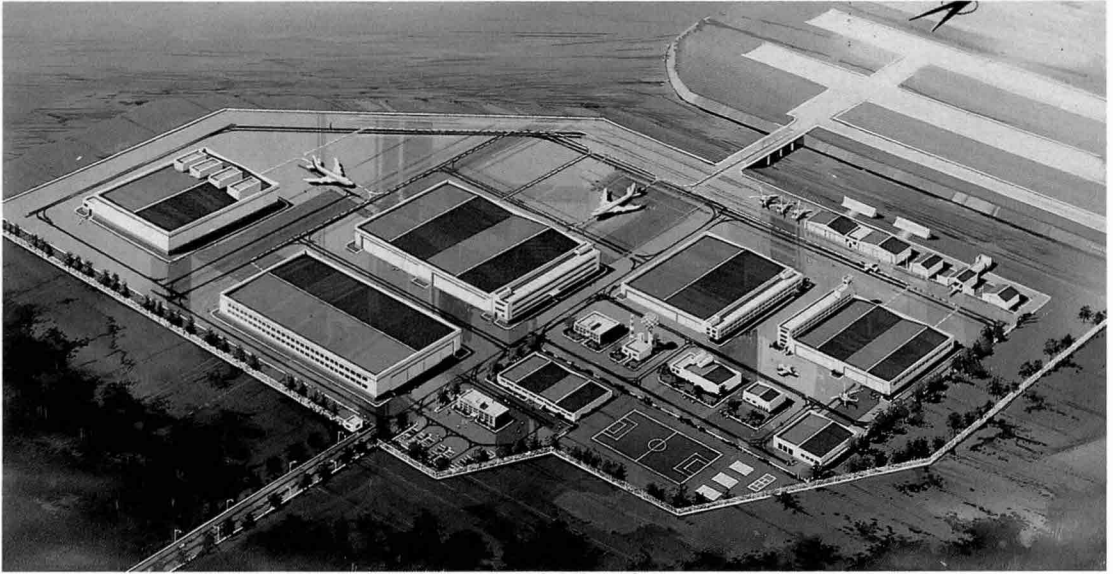


▼ 대우중공업의 吳英一이사(사진 왼쪽)가 브루나이 국방차관에게 설명하고 있다



▼ 말레이시아 해군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특별제작한 경비함 모형을 Dato Najib 말聯 국방장관이 관람하고 있다





1994년에 완공될 三星航空의 국내 최대 종합 항공기 조립공장 조감도

삼성항공, 국내 최대 항공기 조립공장 착공

한국 전투기사업(KFP)이 발전의 나라를 펴고 있다.

주계약업체인 三星航空(사장:李大遠)이 5월 21일 경남 泗川에 국내 최대의 항공기 조립공장을 착공함으로써, KFP사업이 본격적인 사업착수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번에 착공된 삼성항공 사천공장은 총2천 억원을 투입, 20만평의 부지위에 격납고, 기체 조립 및 시험비행설비등을 모두 갖추게 되며, 오는 94년 10월 완공될 예정이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오는 95년에는 국산전투기 F-16 제1호기가 출고되는데 이어, 향후 총1백20대의 전투기를 제작, 생산하는 전용공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삼성항공은 이미 항공기 엔진 및 기체부품을 제작, 생산하는 12만평 규모의 기존 창원 2공장 및 각종 전자시스템 관련제품을 제작하는 창원1공장을 가동중인데 이어, 이번에 항공기 조립공장을 착공하게 됨으로써 기존 공장들과 연계하여, 본격적인 항공기생산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삼성항공 사천공장이 본격가동에 들어가는 오는 99년까지 KFP사업이 수행되면, 기술적으로 초보단계에 머물러있는 국내항공산업이 고도의 기술집약적인 전략산업으로 육성될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KFP사업을 통해 항공기의 조립·제작, 시험 비행까지 국내기술진이 수행함으로써 향후 독자모델의 항공기를 설계, 제작할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항공기 조립공장 착공식은 5월 21일 경남 사천에서 국내외 기술진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국 전투기사업 추진 經過

日 字	KFP 사업 주요 추진내역
1982. 1.	전투기 국산화계획 報告
1985.	항공산업육성위원회 구성
1986. 10. 31	주계약업체로 三星航空 확정 발표
1989. 12. 20	대상기종으로 MD社의 FA18기 선정 발표
1990. 10. 8	美워회 對韓무기판매 승인(FA18)
1990. 11. 1	KFP사업 전면 재검토 발표
1990. 3. 29	대상기종 - GD社의 F16으로 변경 발표
1991. 8. 26	장착엔진 - P & W社의 PW-229로 선정
1991. 8. 30	韓·美양국간 양해각서(MoU)정식 조인
1991. 12. 末	국내 주계약업체와 협력업체 계약 완료
1992. 5. 21	삼성항공, 항공기 조립공장 착공

大宇造船, UAE 現地설명회 가져...



防産 합정 수출
을 위한 노
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 3월 (주)강남이
호주에서 기획탐색합
의 현지설명회를 가진
데 이어, 대우조선이
UAE에서 5월 16일 프
리킷함의 現地설명회
를 열었다. 대우조선은
지난 8월부터 UAE 해
군의 프리킷사업 수주
를 추진해왔으며, 현재
영국 등 4개국 7개 업
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 해군 '92 환태평양훈련 (RIMPAC) 참가

— 국산 최신에 호위함 — 「전남함」, 「경북함」 출진 —

우리 해군이 주변국의 안보위협에 대
처할 大洋 해군의 기초기반을 구
축해 나가고 있다. 해군은 지난 90년에 이어
두번째로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등과 함께
92 환태평양 훈련(RIMPAC)에 참가하고 있다.

5월 20일 3백 여명의 장병을 태우고 鎮海
港을 출발한 1천5백톤급 최신에국산호위함인
전남함과 경북함등 2척의 함정은 6월 3일 합
동훈련모항인 하와이 진주만에 외국함정들과
합류할 예정이다.



環태평양훈련은 美
태평양 해군사령부
주관으로 6월 19일
부터 7월 28일까지
하와이로부터 미국
캘리포니아에 이르
는 해역에서 실시되
며, 지난 71년부터
2년마다 미국, 캐나
다, 호주, 일본 등
태평양 연안국들이
참가해온 지역방어
개념의 훈련이다
이번 훈련에서 한국
해군은 對합정 미사
일인 「하퐁」과 對잠
수함미사일인 「토페
도」등을 직접 발사
하며, 전술과 戰技
를 익히게 된다